



썬에스지엠(주), 신사옥 준공식 및 창립 27주년 기념식 “고객이 사랑할 수 있는 지가공 기계 개발 매진”

썬에스지엠(주)(대표이사 박인호)가 지난 6월 11일 신사옥 준공식 및 창립 27주년 기념식을 부천시 신사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업계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성황을 이뤘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조영만 이사의 사회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양승철 전무이사의 연혁보고, 박인호 대표이사의 기념사, 이찬용 성만교회 담임 목사 및 조기풍 (주)국민피엔텍 대표이사의 축사, 서재수 (주)선 ENG 기술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 테이프 커팅 및 신제품 발표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사옥 준공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식에는 15명의 국내의 축하인사가 함께 했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초심’

이날 행사에서 박인호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진정한 변화의 중심에는 모든 시작의 첫 마음 ‘초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초심을 잃지 않을 때 지속가능한 변화와 성장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창의력을 갖고 불철주야 인쇄지가공기계의 발전과 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기풍 (주)국민피엔텍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썬엔지니어링의 기계를 사용해오고 있는데, 단 한 차례도 기계의 성능과 품질 및 사후관리에 불신을 가져 본 적이 없다”면서

“이제 당연한 한국법인으로서 썬에스지엠이란 이름을 걸고 새롭게 재도약하는 박인호 사장 및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와 찬사를 보낸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국내 법인 독립, 연매출 100억원 이상

썬에스지엠은 기존의 삼정동 부지를 2배 이상 확장해 1년 여의 공사를 거쳐 이번에 신사옥을 준공하게 됐다. 1520㎡ 대지에 2145㎡의 건물을 증개축하고 냉난방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현장에서 동시에 8대 이상을 조립할 수 있다. 특히 신축한 1공장 2층은 종합 사무실, 접견실, 기술연구소, 직원 교육용 대강당 등 연면적 660㎡ 규모의 사무동으로 조성돼 있다.

1986년 3월 일본 썬엔지니어링의 외투 법인으로 창립된 썬에스지엠은 지난 2012년 일본 썬엔지니어링(주)로부터 주식 95% 인수함으로써 온전한 국내 법인으로 독립했으며,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았다. 현재 40여명의 직원이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1. 썬에스지엠(주) 신사옥 2. 기념사를 전달하고 있는 박인호 대표이사 3. 15명의 축하인사가 함께 한 테이프커팅식 4. 신제품 설명을 듣고 있는 방문객 5. 신공장 내부에서 조립중인 제품들 6. 신공장 착공식

전시 제품 소개

1. DRAGON 1300MC (재경지기 납품용)

RFID칩을 원하는 종이상자에 부착하고 3면 접착까지 인라인작업으로 완료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계. 소형 마늘라지에서 B골판까지 다양하게 접착할 수 있는 최첨단장비. 컴퓨터인공지능으로 자동 연산된 데이터를 통해 기계의 부위별 자동 세팅되고 정확한 위치에 칩을 부착해 1대의 기계로 2대의 효과를 창출해 인건비 및 제조경비의 경쟁력 향상.

2. DRAGON 1100 (해내리 납품용)

전천후 6면 접착기로 시간당 3만장까지 4면 접착할 수 있고, 단면 및 3면 접착을 단시간에 세팅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3. PENGUIN 1300 (대림칼라 납품용)

상하부 독립구동으로 분리시키고 판지에서 골판까지 다양하게 접착할 수 있으며 본질부의 길이가 9M, 압축콘베이어 길이가 8M로 B형 골판까지 고속 생산할 수 있는 기계.

4. DRAGON 1100R (화성실업 납품용)

PP 및 PET 등 투명 박스와 판지박시까지 겸용으로 다양한 접착을 구성하고 일반접착기계의 접착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해 새로운 접착방식을 채택함으로써 1100사이의 대형박스에 25m/m의 최소형 박스까지 접착해낼 수 있는 최첨단 기계.

5. CAT-600 (세진판지 납품용)

테이퍼 트레이 접착기로서 종이 접시 및 말뚝형박스를 자동 생산하는 기계.

6. MASTER BLANKER

일부 레저크사 제작 수입기로서 전면 자동탈지 기계. 한제품 당 작업 세팅 시간은 3분 이내로 다품종 소수량과 대량생산의 상반된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기계로 인력 부족과 인건비 절감을 실현. 까다로우시고 있는 인쇄지 시장에서 클린사업장의 지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계. Ⓞ

미니인터뷰

썬에스지엠(주) 박인호 대표이사

“ 초심 잃지 않고 정진할 것 ”

신사옥 준공의 소회는?

지난 2012년 6월 19일에 착공식을 했으니 꼭 1년 만에 준공하게 됐는데, 기존의 공장보다 규모가 약 2배 확장됐다. 현대식 설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현장에서 8대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조립, 생산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공장으로 태어난 것이다.



신사옥 준공에 대한 기대가 클 텐데?

기념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준공한 신사옥의 설비와 시설이 고객이 사랑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지가공기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앞으로의 계획과 미래 비전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매출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기술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강하다. 외형적으로 회사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내부 역량을 더욱 단단히 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